

나의 소원은 모두가 늙어 죽는 것



 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노인들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흐른다. 스무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부모님 집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살던 나는 당신들이 살던 인천을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번, 분기에 한 번씩으로 줄여 나갔다.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다. 당직이란 이유로, 출장이란 이유로,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그 주기가 떨어진 것뿐이다.

의외의 소득도 있었다. 가끔씩 조우하니 부모님과 사이가 돈독해졌다는 사실. 나머지 하나는 당신들이 노화하는 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했다. 아버지의 키가 이렇게 작았었다. 원래 흰머리가 저리 많았었다. 허리는 왜 이리 갈수록 기억(?)자가 된단 말인가. 엄마는 되묻는 횟수가 늘었다. 한두 번은 못 들었겠거니 했지만, “뭐라고?”라는 되물음이 내려갈 때마다 는다. 주름살

도 깊어지고, 늘었다. 세월을 헤아려보니 둘 다 칠순이 훌쩍 넘었더라.

한세기를 살았던 노인의 변화

그들보다 한세대가 더 앞선 노인을 만났다. 2024년 8월14일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였다. 100세를 앞둔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올 정도로 거동이 쉽지 않았지만, 목소리만은 카랑카랑했다. 행사가 열린 서울 용산에서부터 KTX를 타러 간 서울역까지 동행하면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거침없이 얘기했다.

“생존자들 대부분이 암 투병 등으로 병실에 있어 거동이 힘든 상태이고 함께 활동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게 큰 걱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삼복더위에도 움직이는 것이라고.

“나 말고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2024년 8월14일 대구 남구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를 찾아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한 뒤 쓰다듬고 있다.

열심히 움직이는 이들이 많은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바쁘게 살다 보니 오늘이 말복인지도 몰랐다”고 했지만, 냉방이 가동된 기차 안에서 연신 더운 듯 숨을 몰아쉬었다.

눈을 까무룩 감다가도 질문하면 이내 또랑또랑하게 대답했지만, 더 이상 기력을 뺏고 싶지 않아서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 겠어요’라고 하고 기차에서 내렸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지금처럼 건강관리 하면서 내년 기림의 날에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약속했다.

이후로 가끔 연락했다. 그래도 기억

력은 명석하셔서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아 그때 그 기자. 결혼했냐”고 물어보신다. 그때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던 내 얘기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는지. 내가 ‘아직도 못했다’…고 하면 “그냥 하지마. 혼자 살어”라고 대답이 돌아오기도 한다.

부서가 바뀌면서 더 이상 기림의 날 행사장은 취재로 가진 못했지만, 사진으로, 영상으로 이 할머니를 본다. 가끔 보니까 변화의 모습이 체감이 됐다. 눈이 더 침침해지신 듯 하고 웬지 모르게 기력은 한풀 더 꺾인 듯하다. 제발 그냥 내 느낌이며, 사실이 아니길 빈다. 건강이 안 좋아 행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025년 5월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열린 제170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마친 후 고 이옥선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장에서 연설도, 인터뷰도 못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뜨끔하기도 했다.

출입처를 떠나니 관심도 덜해지면서 연락도 뜸해졌다. 얼마 전에 전화했을 때 ‘그 누구였지? 아아 그때 그 기자였지’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말의 속도가 느려진 것 같기도 하다.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만큼의 공백을 지난 연락이었기에 느낄 수 있었을까. 내 느낌이 틀렸으면 좋겠다.

밤에 오는 연락은 불안하다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갑자기, 뜬금없

이, 오밤중에 연락이 오면 불안감이 커진다. 행여나 갑자기 부모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싶어서.

얼마 전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난리였는데,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집으로 돌아가던 차에 운전을 잘못된 건 아닌지, 어머니가 갑자기 도로에서 넘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건 아닌지. 연초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닌지. 행여나 동네의 불한당들이 만만한 노인이라 생각하고 해코지를 한 건 아닌지...

다행히 자다 깬는데 ‘아들이 생각나서



이대역 근처의 소녀상에 시민들이 장갑을 씌워준 모습

전화했다’는 연락이 대부분이었다. 저녁은 먹었는지도 궁금하단다. 결혼 언제하는지가 제일 궁금하다고. 안심과 함께 짜증이 난 나는 ‘일하는 놈이 설마 배꿍고 다니겠냐’고 통명스레 대답한다. 밤에 오는 연락이 갈수록 불안하단 애긴 절대 하진 않았다.

불안감을 키우는 밤의 수신음은 또 있다. 여성가족부(현재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위안부 할머니가 작고하시면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께서 별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곧 보도자료 배포하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상당수의 이러한 연락은 밤 10시가 넘어서 오곤 한다. 여가부를 출입하면서 2~3건의 이 같은 문자를 받았다. 출입처가 옮겨지고 나서야 불안한 문자로부터 난 해방됐다. 위안부 할머니는 현재 다섯 분이 생존해 계신다고 한다. 밤에 올릴 불안한 문자는 5번 더 온다는 의미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다음 달이 될 수도 있다.

더 슬픈 사실은 대부분 별이 된 할머니들이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다는 점이다. 유족들이 신상을 밝히고 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애도하고 싶어도 그 애도의 앞에 붙일 이름을 모른다. 무거운 마



성신여대입구역 근처의 소녀상 주변에 시민들이 가져온 꽃다발 꾸러미가 보인다.

음으로 명복을 빌 뿐이다.

무정물에도 감정이 깃든다

2025년 연말에 인천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어릴 적 내 사진을 보고 계셨다. 먼지가 덮인 앨범 속을 뒤지면서 초등학교이던 내가 달리기 시합에서 꼴찌로 들어온 모습, 동생과 김밥을 쌓아놓고 생일파티를 벌이던 모습, 단칸방에서 네식구가 밥을 먹던 모습, 내 수학여행 시절 모습, 졸업식 때 서럽도록 울던 어릴 적 나의 모습.

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물건에도 정

이 든다고 한다. 어릴 적 교복과 전역 마크가 박힌 군복, 초등학교 때 쓴 나의 일기 등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이유란다. 더 이상 우리 가족들 모두 나이 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한다. 추억이 더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몇 년 전 여가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벌이기로 했다. 당시 150여개의 소녀상이 전국에 있었다고 한다. 여가부의 조사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이화여대와 혜화역 등에 있는 소녀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러’ 갔다. 늘 그 모습 그대로인 동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다.

여름이면 더울까 봐 양산을 씌워놓고 간
이들, 겨울철엔 장갑과 목도리를 한가득
놓고 간 학생들. 소녀상 앞에 있는 꽃다발
은 시들지 않는다. 누군가 계속 새로운 꽃
을 갖고 오기 때문이다. 먼지도 쌓이지 않
는다. 이름 모를 누군가가 쓰고 닦기 때문
이렸다.

소녀상을 회화화하거나 모욕한 유튜
버들이 논란이라는 기사를 본다. 그들은
무정물에도 감정이 깃든다는 사실을 모
른다.

시간이 없는데...

작년쯤부터였을 게다. 내가 고향에 내
려가는 빈도가 잦아진 것은. 당신들의 노
화를 눈치챘기에 난 우리가 함께 보낼 시
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대단한 일을 하진 않는다. 같이 밥 먹고
야구도 본다. 여전히 “결혼은 언제 할래.
나 죽기 전엔 손자 보여주나”라는 엄마의
지청구는 견디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 소리조차도 그리울 날이 오리란 걸 난
직감적으로 깨우친다. 별말이 오가진 않
아도 옆에 붙어있으려고 한다.

‘그래 제발, 얼마든지 잔소리를 해주
세요’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소리를 최소
10년째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
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 정부가 공식 해산한 지 7년이 지
났지만, 여전히 잔여 재산을 처리하지 못
하면서 그 액수가 60억원 수준으로 불어
났다.

재단은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
에 따라 일본이 10억엔(당시 환율로 108
억원)을 출연하고, 양국이 협력해 위안부
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 사업을 벌이는 것
을 목적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정권이 네 번 바뀔 동안 여전히 그 숙
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청산
을 하자니 사용처가 마땅치 않고, 일본에
돌려주자니 받질 않는다. 사용방안을 논
의해봤지만, 기부하라,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쓰라, 기념관을 건립하라 등의 의견
이 제각각이다.

논의의 중심에 선 위안부 할머니들의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이런 난상토론도
그리울 날이 올 것을 모두가 알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난상토론을 벌이길 바란다.
무슨 해법이라도 내놔요 하면 하는 마음이다.

모두가 늙어 죽길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모두가 자신

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결혼 못하고 스스로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이 나와 똑같아 더 정이 가는 주인공 황동만(구교환 분)이 한 말이다. “내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늙어 죽는 것.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늙어 죽길. 병들어 죽지 말고, 괴로워 죽지 말고, 모두 다 늙어 죽길. 후드득 낙엽 떨어지듯이 모두 다 늙어 죽길.”

나에겐 그 대사가 고달픈 현실을 하루 하루 견뎌내는 이들에게 건네는 말로 다가왔다. 세상 앞에 무너지지 말고 잘 버티다 암전하자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나의 마지막 날을 상상해 본다. 교통사고로 급사도 아니고, 세상에 짓눌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도 아니고, 병으로 고통스럽게 죽는 것도 아니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운동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삼겹살도 배불리 먹고 난 뒤 내 침대에서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것처럼 죽고 싶었다. 인생의 끝이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듯, 비참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내 부모님도, 이용수 할머니의 마지막도 그리길 바란다. 그들이 덜 고통스럽고 덜 후회스럽고, 덜 한스럽게 세상을 떠났지였으면 좋겠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가 그들보다

더 오래 세상에 남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계속해서 자라는 모습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꾸짖고 옳은 일을 하면 칭찬해주길 바란다. 그토록 관심이 많았던 내가 결혼하는 모습도 봐 줬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여한 없이 그렇게 늙어서 떠나시길 간절히 빈다. ♡

연합뉴스 이상서 기자